

빅터 차 주한 美대사 내정...대북 강경책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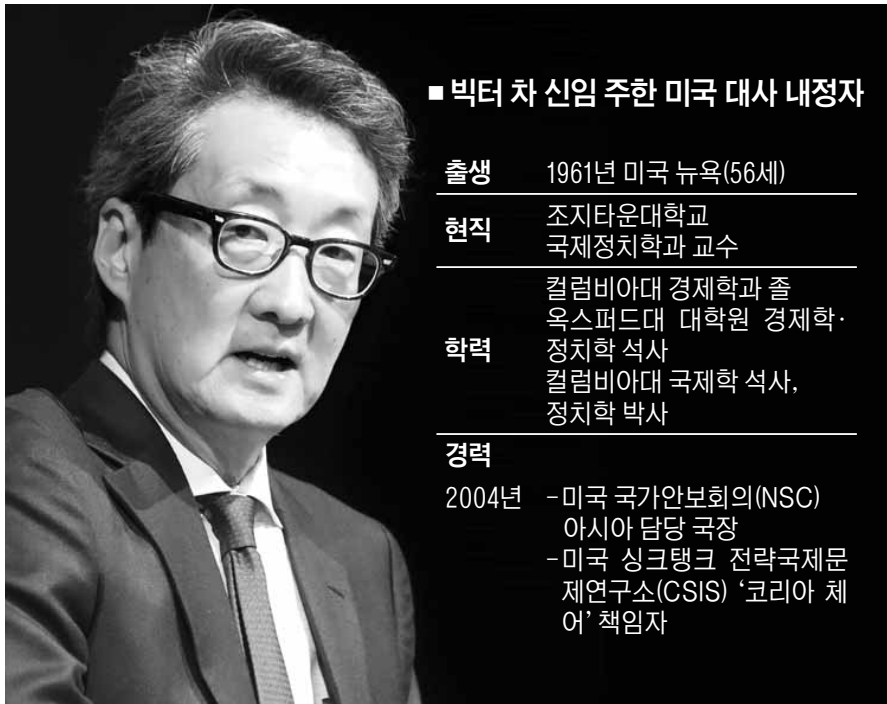
재미동포 2세·현직 교수 출신
부시 정부 6자회담 차석 대표
북핵 강경파...중국 역할론 주장

신임 주한 미국 대사로 빅터 차(56) 조지타운대 교수가 내정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빅터 차 교수를 차기 주한 미 대사로 임명할 계획이며,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 이같은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빅터 차 교수는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12월 백악관에 들어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부대표로 활동한 한반도 전문가다. 2007년 4월 초에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와 함께 방북해 북핵 해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1959년 미국 이민자 자녀로 태어난 한



■ 빅터 차 신임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

출생	1961년 미국 뉴욕(56세)
현직	조지타운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학력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줄 옥스퍼드대 대학원 경제학·정치학 석사 컬럼비아대 국제학 석사, 정치학 박사
경력	2004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코리아 체어'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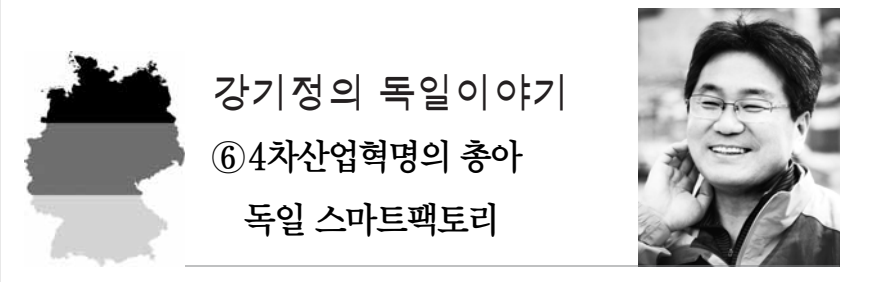
국제 미국인으로,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정치·경제학 석사,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조지타운대 아시아학과 학과장 겸 국제정치학과 교수이자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로 활동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다룬 '적대적 제휴'(Alignment despite antagonism), 북핵문제 해법을 다룬 '북핵퍼즐'(Nuclear North Korea) 등의 저서도 펴냈다.

북핵 문제에서는 원칙을 중시하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지만 NSC 보좌관 재직 시절 온건파와 강경파의 중간에서 조정역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자금줄을 쥔 중국이 협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빅터 차 내정에 대해 "이는 오랜 협의의 결과"라면서 "북한 핵 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 위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의 임명이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강기정의 독일이야기
⑥ 4차산업혁명의 총아
독일 스마트팩토리

베를린에 사는 동안 처음으로 아내의 옷을 산 곳은 아디다스 스피드공장의 의류부전인 니트포유(Knit for you)에서였다. 93년 고임금 때문에 독일을 떠났던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23년 만에 귀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스바흐 공장을 방문하러던 계획이 가능해졌다. 4시간 근무로 무산된 직후였다. 이곳에서 옷을 사는 방법은 새롭다. 대량과 협력해 만든 기계에서 디자인을 정한다. 그 다음 색상을 택하면 곧바로 제작! 주문에서 생산까지는 총 4시간, 공장과 시장의 답을 없애는 새로운 개념의 팩토리다. 듣기만 했던 다품종 소량생산, 개인맞춤 생산시대(Personalized Customization)다. 클릭 몇 번만으로 정확한 니즈가 반

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전체 차의 절반이 친환경차로 바뀔 것이라 예견한다. 에너지는 물론이고 부품산업, 차량수명 연장에 따른 수리나 보험 등 서비스산업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광주가 조립생산과 부품 공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뮌헨 BMW를 방문했을 때 회사 관계자 3명이 나와 향후 100년을 풀러갈 전략을 네 단어로 설명한다. Automated(자동화), Connected(연결), Electrified(전기화), Shared(공유)다. 에너지는 친환경으로, 기능은 최첨단과 연결, 사용방식은 이용과 소유를 분리시키는 공유의 개념이다. BMW는 전기차 중심의 카 셰어링 업체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카 셰어링으로 판매대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판매차량의 마일리지는 더 늘어날 것이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하비 직격탄’ 美 휴스턴 11명 사망...역대 최대 강수량

미국 남부 텍사스주(州) 휴스턴 일대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가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약화하기 했지만, 오히려 이동 속도를 늦춘 채 폭우를 집중적으로 쏟아 붓고 있어 갈수록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하비의 직격탄을 맞은 휴스턴에는 29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미역사상 최대 강수량인 1.25m(49.2인치)의 폭우가 내렸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1978년 1.22m(48인치)를 넘어선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인명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 한 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하비가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관측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와 오스틴을 잇따라 방문해 재난 당국자들을 격려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미국·일본 ‘대북 추가 제재’ 만지작

유엔, 이례적 의장성명
중국·러시아 반대 재확인

유엔 안보리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에 대응해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통상적으로 채택해온 언론성명보다 한 단계 격이 높은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번 도발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 발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을 동반한 강력한 경고에도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선 데다 이번에는 미사일이 일본의 머리 위로 날아가 북태평양 상공에 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제 관심은 유엔의 추가 제재 여부다.

통상적으로는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재 결의까지 간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미국과 일본 등이 추가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실제 새로운 제재카드를 빼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를 추진하면 지난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금지나 동결수준에서 끝난 북한의 핵 실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안보리의 비공개 긴급회의가 3시간 30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것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미국, 일본 등과 중국, 러시아 간의 치열한 격론 때문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며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뭔가 중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일리 자서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오늘 (회의에서) 우리의 모든 파트너와 얘기할 것이 많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우리와 계속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 차원은 물론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카드 가능성도 제기된다. 벳소 고로(別所浩郎) 유엔주재 일본대사도 의장성명 채택 직후 “다들 조치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의장성명에 이어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머리 위를 통과한 만큼 제재 목소리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의 소집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제재 카드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판하면서도 “북핵 문제는 압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 역시 안보리 회의 직후 이날 한반도에서의 어떤 혼란이나 전쟁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차관도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자산은 고갈됐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도 스스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화성-14형’ 발사에 대해 추가제재를 하는 것에 반대 입장은 더욱 확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조업 변화만이 ‘탈광주’ 막는다

영원 제품을 빠르게 받아보는 제조업의 혁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다. 폭스바겐의 경우, 기존 노동자 3만 명이 5년에 걸쳐 감축하고, 첨단IT전문가 9천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력감축으로 생겨난 35억 유로는 친환경 신기술 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 불량률을 제로화하기 위해 모든 공정에 자율센서를 부착했다. 신발, 자동차, 전자제품 등으로도 스마트팩토리가 확산되면서 공장들이 독일로 다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추세면 디자인만 담당하는 국가, 생산만 전담하는 국가가 점차 없어질 것 같다. 메르켈이 명명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다른 영역과 주체들의 융합으로 이뤄낸 거대한 공동체였다. 그 결정적인 장면을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박람회(IFA)에서 봤다. 가전박람회 특강에 나선 사람은 다른 어떤 벤처자본가 회장 디터 체제였다. 그는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 수단이나 친환경 에너지와 사물인터넷(IoT)으로 이뤄진 “시간의 질을 높이는 기계”라고 말한다. 체제 회장의 설명대로 앞으로의 자동차는 신호등은 물론 주변의 경찰서, 구조대 등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이동하는 첨단기기가 될 것이

란 말을 들으며 ‘가치’를 바꿔야 혁신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에 머무는 동안 폭스바겐과 BMW, 벤츠를 방문했고, 파리자동차 박람회, 뮌헨전기차박람회, 하노버사용차박람회를 찾았다. 박람회장과 자동차회사에서 필자가 본 변화의 키워드는 역시 친환경 전기차다.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은 2030년까지는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이미 선언했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 자동차와, 문화, 에너지가 성장 동력인 광주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기업과 대학, 지방정부는 어떤 상생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할까. 분명한 것은 당하는 변화가 아니라 주도하는 변화여야 한다는 점이다. 변화를 예측하고 주도할 때 성장폭과 미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강기정의 독일이야기>는 정치인 강기정이 12년의 의정활동을 잠시 멈추고, 베를린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erlin)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머물며 기록한 독일의 industry4.0, 에너지, 경제, 정치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